

01 교회소식

새해 우리 교회 비전

마지막 때 하나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세워진 만민중앙교회의 새해 전 성도 기도제목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소개한다.

02 생명의 말씀_ 신년기도제목 시리즈 1

영광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영광으로 갚아 주기를 원하신다.

03 BOOK

「옛새 동안의 만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매일 하나님 사랑을 체험케 하며 응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이재록 목사의 저서를 소개한다.

04 간증

죽음 앞에서 선택하신 뜻을 깨달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죽음의 위기에서 회생하는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하신 뜻을 선물받은 김병희 장로 간증.

만민뉴스

제667호 2015년 1월 4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온 영의 흐름 속에 재창조의 권능으로 더 크게 영광 돌릴 2015년

만민중앙교회는 전 세계 1만여 지교회와 협력교회와 함께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다국어 신앙서적과 신문, GCN 방송과 WCDN(세계기독교의사네트워크), MS(만민국제신학교) 등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땅 끝까지 전파하고 있다. 대망의 2015년을 맞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창대히 이루며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뤄갈 것이다.

“전 세계 1만여 지교회와 협력교회, 그리고 모든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뤄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신속히 영의 열매, 온 영의 열매로 나와 목자와 함께 마지막 때 섭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지난 12월 28일 사무연회 시 인사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또한 2015년 새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 4대 비전을 공식 발표했다.

❖ **첫 번째 비전은 ‘영광’**(학 2:9)이다. 우리 교회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해 수많은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땅 끝까지 성결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죄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이기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이 있어야 전 세계

만민이 친히 목도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다. 목자가 쌓아온 희생의 공의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내는 역사가 무수히 펼쳐지게 될 것이다.

❖ **두 번째 비전은 ‘열매’**(살전 5:23)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경작의 열매는 ‘온 영의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목자의 희생을 통해 지난해 영의 평준화를 이뤘고, 올해는 온 영을 이뤄가는 본격적인 흐름이 신속히 진행될 것이다. 이 가운데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들고 세계로 나아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선행하고 아름다운 온 영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할 것이다.

❖ **세 번째 비전은 ‘아름다운 성전’**(계 21:10~11)이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보는 듯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고

록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 무엇보다도 성결을 이룬 참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함으로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건축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신다. 머지않아 복합적인 축복 가운데 가나안 성전과 대성전 건축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온 영의 사람이 많이 나올수록 대성전 건축도 앞당겨지는 것이다.

❖ **네 번째 비전은 ‘재창조의 권능’**(창 1:3)이다. ‘재창조의 권능’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권능을 말한다. 올해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재창조의 권능’이 베풀어져 죄악으로 관영한 오늘날, 가룟 유다처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패역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하여 전 세계 만민을 구원의 길로, 응답과 축복의 길로,

더 많은 성도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것이다.

새해 네 가지 교회 비전만 보더라도 2015년 한 해가 어떻게 진행될지 사뭇 기대된다. 재창조의 권능을 힘입어 영적 변화의 물결이 이 제단을 넘어 교계로, 세계로 거침없이 흐르게 될 것이다. 올해는 전 성도가 목자를 중심으로 더욱 한마음 한뜻이 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합적인 축복을 받아 크게 영광 돌리는 주인공이 되기 바란다.

한편,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2015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제단에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없도록 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질병이 틈탈 이유가 없다. 초신자나 새신자들에게는 믿음을 심어주고 기도해 줌으로 그들이 믿음을 갖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며 새해도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더 평안하고 행복해지기를 소망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니라” (학개 2:9)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뿐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했습니다(요 13:32).

이는 하나님께서만 영광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에게도 영광을 주기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새해에는 이 제단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갚아주시실까요?

1. 하나님께서 목자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그에 합당한 공의를 채우기 위한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기 위해 말할 수 없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이시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시 때까지 자기를 낮추어 희생하심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높이 들림 받으셨으며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빌 2:9-11).

이러한 공의의 법칙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개척 이래 지금까지 32년간은 물론, 그 중에서도 특히 2010년 이후로 저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쉽지 않은 인내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마치 가정에서 식구들이 안락하고 평안하며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만큼 가장인 아버지의 희생의 몫이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은 영혼을 마음에서 놓고 포기하거나 스스로 자기 몫을 감당하도록 놔둔다면 희생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오직 사랑으로 한 영혼도 놓지 않고 이해하며 품고 용서해야 했기에 그 고통과 희생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새해에 그 대가로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그 영광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십니다(학 2:9).

지금까지 이 제단에는 치료와 응답, 기사와 표적과 수많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너무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하기에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전 세계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의 목표는 하박국 2장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난 세월 동안 권능을 더해 오셨고, 수많은 영의 사람과 온 영의 사람들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기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의를 쌓았기에 원수 마귀 사단이 어떤 송사도 할 수 없고, 무수한 영혼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저 또한 어떤 사랑으로 공의를 쌓았는지 원수 마귀 사단이 보았기에 이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또 무수한 영혼이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나도 원수 마귀 사단이 송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쌓아야 할 공의를 계속 제가 대신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각자가 쌓아야 할 공의의 분량을 어떻게든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께서 목자의 열매로 나온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각자의 공의를 온전히 채움으로써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영광으로 갚아주시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같이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전혀 다른 모습이 됐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희생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었고, 그들 마음에 부활의 확신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성령을 받고 놀라게 변화됐지요. 이제는 가까이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나아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됐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지요. 그제야 비로소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라고 당당히 부름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변화되지 않고 생명을 드리는 헌신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주님의 제자로 기억됐을까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여러분이 당당히 나아가 무수한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는 말씀대로 악을 벗고 성결된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성결되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온 영의 차원에 이르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지요. 그러니 그 몫을 감당하려면 먼저 영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둡고 강박한 세상이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되지요. 그것도 수많은 영의 사람이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빛들이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 힘을 합쳐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물리치는 강력한 빛을 발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는 역사를 나타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전 세계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함으로 하나님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도 그 영광이 주어지는 복된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온 영의 사람들로 부지런히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의 관을 씌우시며, 장차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세세토록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열차!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내리는 신령한 만나



저자 이재록 목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주의 종으로 부르받은 후,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더 알기 위해
수없는 금식과 철야기도를 드렸다.

이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에 기록된
창조의 근본 섭리,
십자가의 도에 담긴 비밀,
천국, 지옥, 믿음의 분량, 영혼육 등
깊은 영의 세계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셨다.

■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만나'는 영혼을 소생케 하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등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특히 성경공부 및 매주 구역에 배공과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옛세 동안의 만나』 책자는 발간 이후 25년간 수많은 영혼을 거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왔다.

새롭게 단장한 『옛세 동안의 만나』 개정판은 1부에

서 참 자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행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고 경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2부와 3부에서는 인간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 곧 만세 전에 감추어진 비밀인 십자가의 도에 대해 다루고 있다. 4부에서는 참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알려 주며, 5부에서는 믿음의 분량과 천국의 처소에 대해, 6부에서는 절기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에게 내려 주신 만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원하셨다. 이러한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라는 여정을 거쳐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했음에도 막상 광야에서 목마름과 배고픔이라는 현실에 맞닥뜨리자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권능으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마시게 하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 배불리 먹게 하셨다.

성경은 '만나'에 대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출 16:14),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깎듯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출 16:31) 기록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만나'는 단지 육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출 16장).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라는 또 다른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적인 만나'이다. 곧 하나님 말씀이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만나의 영적 의미

요한복음 6장 48-5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생활을 하는 동안 변함없이 만나를 내려 주시되 옛세 동안은 거두게 하시고 제질 일은 안식하게 하셨다. 옛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질 일에 안식하셨듯이(창 2:2-3)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이다.

*

오늘날은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 성도들은 주일이 되면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다.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 만나를 비같이 내려 주셨으니 우리도 옛세 동안 힘써 일하며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불같이 기도해야 한다. 영적인 만나를 내려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 나갈 때 반드시 놀라운 축복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제 영혼이 『옛세 동안의 만나』를 읽고 소생되었습니다”



이인숙 권사
(54세, 2세대 18교구)

저는 우리 교회에 오기 전, 지인으로부터 『옛세 동안의 만나』 책자를 건네받아 읽으면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 안에는 8년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이 가득했지요.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는 희열이

넘쳤고, 저는 그 말씀 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 섭리, 참 믿음과 천국의 분류 등 크리스천으로서 알아야 할 말씀들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랐다는 영적 무지함을 깨우치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

다. 무엇보다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고, 제게도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의 처소인 새 예루살렘 성의 소망이 생겼지요. 그곳에 못 간다면 안 될 것만 같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제 영혼은 소생됐고, 생명의 말씀과 불같은 기도가 있는 거룩한 제단으로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01 JANUARY
2015.1.04~1.10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천국 21-25 ■ 우리의 열심은
- 육체의 결여 1-3 ■ 사랑장 19-20
- 2차 영혼육 8-12 ■ 영광
- 성령의 9가지 열매 9 ■ 예언 2
- 믿음을 책망하시니 1-2 ■ 공의
- 요한계시록 강해 50-51 ■ 열매
- 온전한 심일조와 한물 1-4
-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2-4

GCN TV설교

- 악한 생각 / 죄의 짐 (이수진 목사)
- 정직한 자 2 (이미영 목사)
- 영의 세계 26 / 기도 5 (이희선 목사)
- 생명수 18 / 읍기 강해 7 (신동초 목사)
- MIS 강의 22 / 탕자의 비유 1 (정규영 목사)
- 새 생명으로 이끄셨네 (조대회 목사)
- 알파와 오메가 (김승신 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26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10
- English 15 ■ 플로리스트 3
- 옛날 옛적에 12 ■ 창조와 과학 3
- 흥겨운 소리 8 ■ 만민 지킴이 9
- 모두 드려요 20 ■ 내 마음의 찬양 4
- 즐거운 요리 22 ■ 뷰티풀 라이프 14

해외성회 및 교육

- 회상 23
- 뉴욕 연합대성회 3
- 2014 지역장, 조장, 구역장 교육 5-6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 주시며 참 자녀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김병희 장로 (50세, 2대대 12교구)



‘내가 이렇게 호흡하며 걸을 수 있구나...’
마치 꿈을 꾸듯, 하늘을 나는 듯한 기쁨
속에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
나갑니다.

사망율 90% 패혈증, 죽음의 위기에서

저는 지난해 10월 23일, 미열과 고열, 오
한 증세가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
니다. 그런데 11월 2일 저녁, 온몸에 통증까
지 겹쳐 거동조차 어렵고 잠을 잘 수도, 앉
고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급기야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몸에 기운이
없고 정신이 혼미해져 갔지요.

결국 11월 4일 새벽, 가족에 의해 119 구
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가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500
이상이었고, 혈압은 50으로 떨어진 상태였
지요. 사실 저는 3년 전부터 당뇨가 있었
는데, 몸에 큰 이상 증세는 없었습니다. 그
런데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회를 먹은
것이 문제였지요. 저염 증세, 탈수 상태, 콩
팍 이상 증세는 물론, 패혈증으로 사망율이
90% 이상인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내
가 옳다.’고 하는 의가 아직도 남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1993년 1월, 아내의 인도로 만민중앙교회
에 출석한 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신실
하고 진실하신 모습과 깊은 사랑의 마음을

느끼며 마음의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 일에
앞장서는 일꾼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서 아직도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남아 있었던 것입
니다.

부모님은 딸 넷을 낳은 후 아들인 저를
낳았기에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
며 성장했고, 그러면서 내 중심적인 사고가
형성돼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번 일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우치며 아
버지 하나님과 주님, 목자의 은혜로 살아가
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회생하고

저는 입원 후에도 몸을 가눌 수 없었고
고열과 통증 등으로 1~2분 만에 깨어나는
등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11월 6
일, 남선교회 총지도교사 이희선 목사님이
오셔서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
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후 잠을 편안히 잘 수 있었지요. 그런데 다
음 날부터 또다시 고열, 오한, 통증이 반복
됐습니다.

11월 8일 새벽 5시경, 총지도교사님의 배
려로 산상기도 중이신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뒤 혈

액검사와 소변검사를 받았는데, 극도로 위
험했던 패혈증, 저염 증세, 콩팥 이상 증세
가 사라지고 혈압과 체온도 정상으로 됐을
뿐 아니라 염증 수치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주치의는 기적이라
며 검사 결과에 놀라워 했습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산상기도 중이신 당
회장님께 감사편지로 전해 드렸습니다. 하
나님과 주님의 은혜, 그리고 당회장님 권능
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이미 저는 이 세상 사
람이 아니었을 텐데 당회장님의 단 한 번의
기도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걸로 보이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신에 실타래가 터져 피부가 붉게 변했는
데, 일주일 만에 사라졌고 피부가 아주 부
드럽게 변했지요. 체질까지 개선해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을 체험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제 자신을 돌
아보며 정리할 수 있는 시간과 더불어 많은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
하는 사람이 됐고, 주변 분들이 매우 소중
하게 느껴졌지요.

다시 찾은 새 생명,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생명을 다시 얻은 저는 요즘 찬양을 불
러도, 기도를 잠시 하더라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감동이 됩니다. 또한 설교 말씀들
이 더욱 제 마음에 생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즐겁기만 하지요. 더욱이 가
족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가족 모두를 사랑
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
이 새기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사춘기를 못 느낄 정도로 성장
했고, 병원이나 약과는 상관없이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큰딸 김혜진 자매는 예능위원
회 소속 천상의무용팀과 기관장으로, 작은
딸 김혜민 자매도 기관장으로, 아내 박선희
권사는 2대대교구 대총무 조장으로, 저는
남선교회총연합회 부회장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요. 가정에는 서로에 대한 소
중함으로 이전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으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수년간 만민 하계수련
회 실무자로서 행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
래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의 역사를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가깝
게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 안에
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할진대
2015년 사무연회 때에는 감사패를 수상하
는 큰 축복까지 받았으니 또 얼마나 감사
한지요.

죽음의 위기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
록 크신 사랑과 놀라운 권능으로 기도해
주시며 늘 진리로 양육해 주시는 당회장님
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
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
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200-733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창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서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창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용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영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선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1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안로 22, 은성빌딩 5층
☎031485-9143, 010-4201 2073
- 인천지성선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검단지성선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선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선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선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선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선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선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